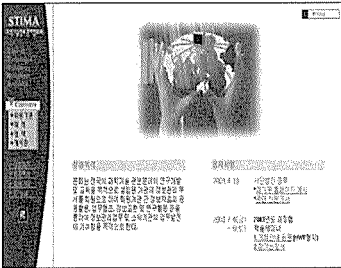


(사)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정현숙_총무



(<http://stima.or.kr>)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 이하 과정협이라 칭함)는 1972년 서울시 청량리 흥릉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기관들이 당시로서는 절대적인 과학기술정보의 빈곤과 아울러 정보의 홍수를 수용해야 하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단지내의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6개 연구기관들을 주축으로 '서울연구개발단지도서관실무자협의회'를 발족한 것이 출발이다. 이때 처음으로 "과학단지장서종합목록(서양서편)"이라는

회원기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양 단행본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1994년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의도로 탄생하게 된 과정협은 2003년 사단법인이 되어 협의회외의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지난 32여년간의 국내 도서관계를 이끌어 왔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정보협력 활동에 기여하고, 국내의 정보관리 기술 및 인식의 급격한 변화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원기관의 발전 및 공동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정협은 전국의 과학기술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의 정보관리부서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기관 간 정보자료의 공동활용, 업무협조, 정보교환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관리업무 및 소속기관의 업무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올해까지의 회원현황을 살펴보면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소외에 전국의 상호 유사한 연관성의 성격을 띤 연구소를 중심으로 57개의 연구기관이 가입하였고, 특정 연구분야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교환하고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다.

과정협은 매년 2월에는 정기총회와 전 회원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7월에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른 회원기관의 역할과 공동의 발전방향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정보서비스 기술향상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7월 2일에 포항의 청암학술정보관에서 "정보서비스 및 정보원 활용에 관한 최신동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정협은 1985년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94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1980년대 국내 도서관의 자동화 추세를 선도하였고, 1990년대에는 회원들의 해외교육 훈련 실시, 인터넷 웹서비스 및 Union DB 프로젝트를 통한 회원기관간 상호대차 제도 도입등 전문도서관 발전을 주도해왔다.

벌써 3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협의회로서, 향후 끊임없이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더 생산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보관리 전문직의 모임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협이 되고자 한다. 

[문의 : 총무 : 정현숙, ☎ 02-862-6623, 868-2294, 전송 : 042-861-9561, e-mail : ex-stima@kaeri.re.kr, 주소 : (305-353)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150(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과 내)]

도서관계와 NGO를 찾아서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전영순_회장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는 1998년 1월 12일 어린이도서관 운동과 독서문화운동,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창립하여, 2004년 3월 3일에 문화관광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다. 현재 20개의 전국어린이도서관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국에 4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순수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우리 회 소속 어린이작은도서관은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각 지역에서 꾸준한 지역어린이도서관 및 독서문화운동에 헌신해 오고 있다.

우리 회에서 펼쳐온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회에서는 약 1년 동안 수 차례의 모임을 갖고 논의 끝에, 2001년 2월 어린이도서관에 맞는 분류법과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사용해 오고 있다. 이 분류는 어린이들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자들이 장서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현재 50여 곳의 어린이도서관에서 이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그 동안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분류에 관한 워크숍을 거쳐 어린이도서관에 맞는 분류법을 체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해마다 실시되는 회원 연수에서는 정보교류는 물론 어린이독서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여, 회원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책 잔치를 해마다 열어 각 지역의 어린이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도 5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을 순회하는 '책 속에 풍덩! - 2004년 어린이책 잔치'를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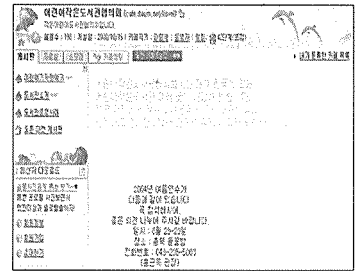
작년과 올해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쌓아온 어린이도서관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천, 제천, 진해, 청주, 제주 기적의도서관 개관준비를 맡아 성공적으로 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작년에는 도서관에서 처음 읽는 책 목록이 들어있는 리플렛을 만들어 각 도서관에 배포하여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1999년 어린이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1차 자료집을 발행한 이후 올해 제2차 자료집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에는 회원 도서관 운영자들이 발표했던 글이나 강의안,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자료집을 제작하려고 한다. 그 동안의 어린이도서관 운동을 정리하면서,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이 되리라 본다.

그 밖에 9월 말쯤에는 어린이도서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회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주 3일 이상의 개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문고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양서 비치 등을 갖추고 있으면 대표 이름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aum에 개설되어 있는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카페에 실려 있다. ☎

[문의: 회장 겸 서울지부장: 전영순(서울 파랑새 ☎ 02-432-5622), 경기지부장: 민경자(경기 아이다에듀 ☎ 031-556-2971), 충북지부장: 오혜자(청주 초롱이네 ☎ 043-296-5050), 남부지부장: 임기수(제주 설문대 ☎ 064-749-0070)]



<http://cafe.daum.net/ilovei>